

주 일 예 배 순 서

2019년 6월16일 오전 11시

사회 김기무 집사

*송영	13장(Opening Song)
*신앙고백	사도신경(Apostles' Creed)
경배와 찬양	다같이(Praise & Worship)
합심기도	다같이(United Corporate Prayer)
대표기도	김미란 집사(Lead Prayer)
교회소식	사회자(Announcements)
봉헌	봉헌송 489장(Tithes & Offering)
봉헌기도	사회자(Offertory Prayer)
성경봉독	에스라 1:1-4(Ezra 1:1-4)
설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들(Message) 노정해 목사 Dr. JungHae Noh
*송영	사랑의 종소리(Closing Song)
*축도	노정해 목사(Benediction)

주일에 섬기는 분들 People Who Serve on Sundays

	6월(June)	7월(July)
헌 금 위 원	함진옥 집사 노은실 집사	허지영 집사 김창희 집사
안 내 위 원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대 표 기 도	이번주: 김미란 집사	다음주: 김창희 집사
이 번 주 친 교	준비: 노은실 집사 김은희 성도	기도: 함진옥 집사
다 음 주 친 교	준비: 허지영 집사	기도: 한신옥 전도사
이 번 주 헌 화	헌화: 마이클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다 음 주 헌 화	헌화: 데이빗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크리스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사가 돌아가는 형편에 휘둘리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서지 않으면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이 그렇다고 장담하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성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출 게 틀림없다. 그러나 운명 앞에 덜덜 떨지 않고 배기겠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외면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면 내면생활은 어둡고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혼자라는 생각에 무얼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자기 검열을 거듭할수록 심기가 불편해지고 급기야는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반성이니 성찰이니 하는 게 도무지 불가능한 형국에 이를 것이다. 거기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진실성이 삶에서 완전히 실종될 수도 있다. 속에는 자기 회의와 걱정, 자기 연민, 해묵은 원한 등이 그득해도 겉으로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건강하고 온전한 듯 행세한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속의 여러 방들에 들어가 무엇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처리할 방도를 가늠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내면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한, 백이면 백 위선에 빠지고 만다. 17세기 영국 신학자 존 오웬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 지켜보는 눈길이 전혀 없을 때. 이러저러한 상념에 잠기도록 몰아가는 압박 요인이 전혀 없는 순간에 무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살피라.

우리교회 핵심 가치 및 사역 Core Values & Ministries

아름다운교회는 예배, 선교, 양육, 섬김의 공동체로서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We exist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봉하 순회목사: 한순진 안수집사: 함진욱
- 반 주: 권새미 김창희 찬양팀장: 김정민
- 경배찬양: 김정민 김기무 김미란 허지영 김창희
노은실 오병국 양해성 고영민
- 주일학교: 한신옥 이조앤 백종희 김다인 이보람
- 학 생 부: 한신옥 김다훈 청 년 부: 오병국
- 믿음목장: 김기무 김창희 소망목장: 함진욱 이봉하
- 사랑목장: 김미란 노은실 은혜목장: 고광원 고경희 화평목장: 백종희
- 비전목장: 이봉하 이조앤 EM 목장: 마네아 드림목장: 한신옥 이보람
- 난타사역: 한신옥 음향영상: 오병국 양해성 김정민 고 은 김다인

2019년 6월 16일

금년도 표어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714)719-9338

아름다운교회
ANAHEIM BEAUTIFU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 : 이 봉 하 목사 Stephen Lee, Pastor

기 도

팀 켈러

기도는 세상을 거스른다.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실재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심 '요긴한 게 다 수중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밝아진 마음'이 없으면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한없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자 아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성도들의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 생활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선으로 여겼다.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며, 위안을 얻으며, 애써 지키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온갖 선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그 유익을 만끽하는 길이다. 그러나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내는 통로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잘 알아가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기도는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사64:7) 행위다. 옛 사람들이 지체 높은 이들의 옷자락에 매달려 도움을 호소한다든지, 현대인들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를 끌어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면생활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토대를 두고 내면생활을 가꾸간다. 남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물질적인 번영, 성과 등에서 내면의 평안을 찾는다.

1 기원 Greetings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이번 주 성구 Bible Memory Verse

이번 주 성구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입니다.

3 감사 Thanksgiving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주시는 노정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 교역자 소식 Ministerial News

이봉하 목사님께서는 제주간의 고국 방문 일정을 위해 지난 주간에 출국 하셨습니다.

5 KTEE 소식 KTEE News

한순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말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TEE 세미나 사역 일정을 위해 지난 주간에 출국하셨습니다.

6 주일 강단 사역 Pulpit Ministry

다음 주일에는 송인철 목사님(뉴홀 한인교회, 6월23일)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6월 30일 주일에는 이원규 목사님(카리스 교회, 6월30일)께서 말씀을 증거 해주실 예정입니다.

7 캘린더 Calendar

- OC 원로 중창단, 합주단 정기 모임(본교회,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KTEE 세미나 일정(6/15 경북대구교수선교회 특강, 6/17 서울 신학대학원 세미나, 6/19-20 기성선교사 훈련원 세미나, 6/24-25 서귀포 반석교회 세미나, 6/27-28 지구촌 교회 세미나)
- 한인 나사렛 청소년 인카운터 및 교역자 자녀 수련회(7월10-13일)
- 애너하임 연회 어린이 캠프(7월15-19일)
- 애너하임 연회 십대 학생 캠프(7월28-31일)

8 기도 섬김이 Leaders in Prayer

예배기도 6/23 김창희 집사 6/30 백종희 권사 7/07 김기무 집사
친교기도 6/23 한신옥 전도사 6/30 오병국 집사 7/07 신혜숙 권사

9 친교 섬김이 Fellowship Meal Prep

6/23 허지영 집사 6/30 김미란 집사 황동필 집사 7/07 고경희 권사
7/14 남병숙 권사 고 은 집사 7/21 김가등 성도 김영순 성도

우리교회 이모저모 Prayers & Etc.

봉헌하신 분

2019년06월2일

십 일 조	고한성 백종희 김기무 김미란 김창희 노은실 마네아 허지영 신혜숙 이문구 이은숙
감사헌금	고광원 고경희 고한성 백종희 백복녀 백연희 백선희 이보람 이봉하 이조앤 허지영
선교헌금	고한성 백종희
주일헌금	강숙희 김미란 김수홍 김영순 김희숙 남병숙 무 명 박길환 김숙희 윤재호 조은정 최진길 최신해 한순진 한신옥 함용선 허지영 황동필
특별헌금	허지영
기타헌금	비바교회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역대하 29:14)



기도 제목

- 1 온 교우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한해가 되도록
- 2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3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해가 되도록
- 4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부흥을 위하여
- 5 한순진 목사님의 KTEE사역을 위하여
- 6 162개 세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나사렛 선교사들과 다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 7 이은덕 선교사(필리핀), 이흥기 선교사(멕시코), 전예인 목사(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 8 미주 한인나사렛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9 조국과 미국의 안녕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집회 안내

증보기도회 주일 오전 10시 2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생부 주일예배 오전 11시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15분
경배 찬양 준비 오후 1시 15분
수요 TEE 성경공부 오후 7시30분
새벽 화-목 오전6시 토 오전 7시
금요 찬양 집회 금 오후 7시 30분

TEE는 신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성경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사역에 눈을 뜨게 합니다.

Crumbs for Life

Grace Avoidance

Richard Foster dared to use words like 'meditation' in his writings on spiritual discipline, which put him under suspicion as New Ager. Chuck Colson told me the ugliest mail he has ever received came from Christians in response to his accepting the Templeton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 which sometimes goes to non-Christians. "Our brethren were far less charitable than the secular media during the days of Watergate," he said, in a terrible indictment. The mail heated up even more when he signed a statement of mutual cooperation with Catholics.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Do not do what they do, for they do not practice what they preach." The word hypocrisy means, simply, "putting on a mask." Evidently Jesus himself coined the word, borrowing it from the Greek actors, or hypocrites, who entertained crowds at an outdoor theater near his home.

- Philip Yancy -